414장 세상은 요란하나

- 이세상은 요란하나 내맘은 늘 편하다 1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것일세
- 이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일 참 많으나 2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 육신의 눈 못 볼때에 신령한 일 참 많으나 저 천성문 보게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 4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5 내 맘과 뜻 다 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가네

510장 하나님의 진리등대

-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1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비추세
- 조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2 어디 불빛없는 가고 찾는 무리 많구나
- 3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 선에 건져라
- 후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렴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 내어 살리세

12월 7일(금) 기도 담당 : 김방현 집사

2018년 12월 6일(목)

이른아침예배

인도 : 박서	훈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다	같	이
찬 송····································	같	이
기 도양수	 수석	집사
성 경 봉 독 창세기 47:1~31 인	도	자
찬 양	벽찬	양대
설 교『선택된 민족을 위한 요셉의 경륜』 이성	강학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다	같	이
찬 송 510장다	같	이
축 도설	교	자

<창세기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요 일	본 문	제 목
12월 4일(화)	창 45:1~28	고난을 승화시킨 자의 고백
12월 5일(수)	창 46:1~34	마침내 드러나는 하나님의 큰 뜻
12월 6일(목)	창 47:1~31	선택된 민족을 위한 요셉의 경륜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8년 12월 6일(목)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잠시 잊고 살아갈 때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길에서 주님을 깊이 의뢰하며 주님 날개 아래 항상 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애굽에서 최고의 권좌에 올랐으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기 사명을 붙잡고 살아간 요셉의 삶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요셉같이 어떤 여건과 환경에서도 적응하되 그것에 동화되지 않고 천국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시민의식을 확고하게 갖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돌보게 하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 곳곳에서 고통받는 영혼들, 전쟁과 기근의 소식으로 눌린 영혼들에게 하늘의 평화와 위로를 내려주옵소서. 피조세계의 한탄과 슬픔을 긍휼히 보시며 믿음의 사 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뤄지는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이 나라 의 지도자들 가운데 겸손한 마음과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섬기는 위치 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새문안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131년의 긴 역사 동안 새문안교회를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돌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건축 일정을 매순간 주장하여 주셔서 안전사고 없이 완공되는 날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와 물질의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한 소망 안에서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상학 담임목사님을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생명의 양식으로 온 성도들을 힘 있게 양육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통해 새문안교회가 주님의 복음과 사랑으로 더욱 흥왕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많은 환우들과 힘든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곁에 계셔서 새 힘으로 일으키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